

10월8·9일 전국학생 총결기 “국보법 폐지·BK21 철회” 학생운동 진영 공동 연대 투쟁 성사



지난 2일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국보법철폐와 BK21 철회를 위한 청년학생투쟁대회가 열려 이후 정부당국과의 미담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과 최근 발표된 BK21사업 등의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8일과 9일 기점으로 학생운동 진영의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의 경우 현재 국민회의의 소폭개정 움직임에 반대해 이미 전국의 2백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를 결성해 서명운동과 국회정원운동 등을 벌이고 있으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불교계와 기독교 등의 종교단체에서도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한 교육관련 법과 제도는 이미 교수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학생운동단체들의 이번 대정부투쟁은 그 동안 분열 양상을 보여왔던 각 학생운동 정파들이 공동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대학사회내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대와 한성대, 대전대, 한림대, 금오공대 등 전국의 15개 대학에서는 총투표와 동맹휴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0-40개 대학에서도 총결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윤기진·명지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은 오는 8일과 9일을 ‘미·일의 전쟁 책동과 경제침탈 분쇄와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민중생존

권 쟁취, 교육발전 5개년계획 철회’를 내용으로 ‘한총련 동맹휴업’과 ‘한총련 백만학도 행동의 날’로 설정하고 있다.

한총련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로 △신 5027작전계획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 해외매각 반대 △한총련과 범민련의 이적규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민중운동단합 중단과 민중생존권 보장 △BK21철회와 학생자치권 탄압중단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생연대회의(의장=박재경·숭실대 총학생회장)와 전국학생회협의회의(의장=조영권·서강대 총학생회장)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 보수정치의 혁파와 교육악법 철폐, 교육재정 확충, BK21철회’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등 활발한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교 서울캠 총학생회 또한 오는 8일 불상 앞에서 ‘국보법 철폐와 교육발전 5개년계획 철회, 학원자주화투쟁 승리를 위한 민족통일 행동의 날’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의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살아숨쉬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내외 대학의 교육을 더욱더 황폐화시키고 있는 현교육 제도들을 반드시 철폐시켜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교육관련 정책 철폐투쟁은 학생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유철주 기자
cows@cakra.dongguk.ac.kr

경주캠 농촌일손돕기 4천여명 참가

지난달 29일 벼세우기 활동 진행 ... “지역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

경주캠퍼스(부총장=최규철·사회체육학)는 지난달 29일 4천여명의 교수, 학생,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 동국인 벼 일으켜 세우기’ 봉사활동을 인근지역인 경주시 석장동과 현곡면 일대에서 가졌다.

▶관련기사 9면
이번 활동은 지난달 20일부터 2차례에 걸쳐 불어닥친 태풍의 여파로 수확기를 앞둔 경주시내 3백 54ha의 벼가 쓰러지거나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는데 따른 것으로, 이번을 계기로 본교 경주캠이 지역대학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경주를 비롯한 남부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이원식 경주시장의 협조요청과 이석근 현곡면장과 최규철 부총장의 면담 이후 “조속히 벼를 세우지 않으면 누운 채로 썩어 버려지거나 썩는 등의 막대한 피

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후일 29일로 촉박하게 일정을 잡았다고 학교당국은 밝혔다. 이날 활동은 참가자들이 오전 8시 30분까지 대운동장에 모여, 각 단대 소속단위에서 인원을 점검한 후, 학교에서 지원한 40여대의 버스와 60여대의 현곡면지역 주민들의 소형트럭을 타고 각 학과에 배정된 목적지로 이동, 오후 늦게까지 현지 농민들의 일손을 도왔다. 또한 학교당국에서는 반코팅장갑 5천켤레와 학과별로 10만원씩을 지원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최규철 부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흘린 땀방울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따라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성실한 봉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었던 한 농민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국대 학생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경주캠은 지역중심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에게 도움을 받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와 동국대 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봉사활동을 통해 석장·현곡일대에 피해를 입은 24만여명의 쓰러진 벼 가운데 9만여명의 벼를 일으켜 세워 40%의 복구작업을 마쳤다. 이날 참가한 학생에게는 15시

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되며, 30시간을 채울 경우 봉사학점으로 1학점이 부여된다.

한편 같은 날 인근 학교인 경주대와 서라벌대, 경주지역 고교생 등 모두 7천여명의 학생들도 경주일원의 피해 농가를 돕는데 참여했다. 정희정기자
biwon@mail.dongguk.ac.kr

북미주 동문회 모교 방문 애교심 확인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다채로운 행사 진행



지난 1일 서울캠 상록원에서는 북미주 동문 초청 환영연이 열려 동국발전의 의지를 느꼈다.

뉴욕, 남가주, 샌프란시스코 등 북미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 동국발전의 결의를 다졌다.

과 단결력을 과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동문들에게 “새롭게 거듭나는 동국에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시영 북미주총동창회장은 “이번 행사는 동문들의 결집력을 더욱 높여 동국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자리”라고 평하며 “앞으로 매년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선발해 북미주에 초청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북미주 동문들은 다음날에는 경주캠퍼스 및 부속병원을 시찰한 뒤 불국사를 관광하고, 오후 7시부터 열린 동국인체육대회 전야제에, 지난 3일에는 동국인 체육대회에 참여해 ‘한번 동국인은 영원한 동국인’임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과 단결력을 과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동문들에게 “새롭게 거듭나는 동국에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시영 북미주총동창회장은 “이번 행사는 동문들의 결집력을 더욱 높여 동국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자리”라고 평하며 “앞으로 매년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선발해 북미주에 초청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북미주 동문들은 다음날에는 경주캠퍼스 및 부속병원을 시찰한 뒤 불국사를 관광하고, 오후 7시부터 열린 동국인체육대회 전야제에, 지난 3일에는 동국인 체육대회에 참여해 ‘한번 동국인은 영원한 동국인’임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수학경시대회 시상식 열려

모두 38명에게 상패 전달

지난 30일 경주캠 원호관 소강당Ⅱ에서 본교와 포항MBC가 공동주최한 ‘제1회 대구·경북지역 수학경시대회 시상식’이 송석구 총장과 박근화 포항MBC사장을 비롯한 13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는 지난 12일 본교에서 치러진 수학경시대회 참가자 1천6백59명 가운데 입상 초·중·고등학생 수학경시대회 시상식’이 송석구 총장과 박근화 포항MBC사장을 비롯한 13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학교) △최우수상=최동부(배성민·예천초등6), 중등부(김소아·포항제철중3), 고등부(이지훈·포항제철고1) △우수상=정동형(포항고1)와 5명 △특별상=김도관(경주문화고2)와 8명 △장려상=이현호(김천고2)와 20명이다.

이와 관련해 송석구 총장은 “수학은 과학기술의 지식이며, 근본인만큼 수학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교수회 8일 합동대의원회 총회장 선출 등 인선 확정

서울, 경주 양캠 교수회는 오는 8일 서울캠 교수회의실에서 합동대의원회의를 열고 교수회총회장을 선출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양캠 교수회의 총무를 지명할 예정이며, 교수회 산하의 각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전기금 ARS 7000-119

동대신문 기획광고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합시다.

유엔 유네스코에서는 문맹퇴치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상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가치와 공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분별한 외래어의 사용, 신조어 남용 등으로 우리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합시다.

동대신문사

단과대 학술제·체전 힘찬 개막

예대·사과대 등은 중간고사 이후 ... 총학·동연은 다음주에

2학기 개강이후 각 단과대 학생회의 학술제와 체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재 학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교육발전 5개년계획·BK21의 철회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99학상예술행사'는 11일부터, 동아리연합회의 '99열린동연제'는 13일부터 각각 진행되며 불교대, 사과대, 예술대 등은 2학기 중간고사 이후 학술제와 체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각 자치기구들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을 중심으로 하는 문예공연과 체육대회 등의 '99동백한마당'을 개최한다.

생지대 생지대 학생회(회장=김동석·산지4)는 '국가보안법 철회와 학원자주화 투쟁, 대학의 공체적 생활복구'의 기조 아래 6일의 개막제와 연날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7일: 국보법과 학자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퀴즈대회 △8일: 실용농장에서의 축구대회와 가요제를 중심으로 한 폐막제 등의 일정으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99동백한마당'을 개최한다.

대동제는 '21C 공대생의 창업 전망'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회도 열린다.

정산대 정산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진수·컴퓨터정보통신공학2)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농구, 줄다리기대회: 6일-7일 △네트워크 게임대회(스타크래프트): 컴퓨터 공학전공 실습실 △DDR(DANCE DANCE REVOLUTION)대회: 정보문화관과 학생회관, 계산관 앞 공터 등지에서 '99정보문화축전'을 진행한다.



지난 30일 이종의 '보신굴 한마당' 전야제를 시작으로 이번주 본격적인 학술제와 체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상대 경상대 학생회(회장=채진석·경영3)는 오는 7일과 8일의 국가보안법 철회와 교육발전 5개년 계획·BK21 철회의 내용으로 열리는 선전거리를 중심으로 △7일: 열린강좌, 장기자립대회, 체육대회 △8일: 사물놀이와 노래공연

공과대 공과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태하·전자공4)는 '나라! 나라! 우리랑!'이라는 모토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99원동대동'을 개최한다. 축구와 족구, 농구 등의 체육대회와 율동가요제, 영화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범대 사범대 학생회(회장=김희정·국교4)는 "그대, 찾아 떠나는 가을 여행"이라는 모토아래 오는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각각을 중심으로 '99학림축전'을 진행한다. 이번 축전에서는 열사추모거리를 비롯해 사진전시회와 8일의 화림한마당이 열리며, 각 과별로는 학술

강연회와 독립영화 상영회 등이 진행된다.

아중 지난 9월 28일부터 '힘난한 길 웃으며 가자'라는 모토아래 열리고 있는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이영수·전통4)의 '99남산골한마당'은 지금까지 △일방적인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를 위한 체전

△국가보안법 철회를 위한 인권만화전 △정적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사진전 및 일일차집 △북한 애니메이션 영화제 △'99발광, 미래내 소모임 문화제 등을 진행했으며 오는 6일에는 남산골한마당의 본 행사를 개최한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복지향상위해 합리적 대안 모색"

노조 정기총회서 임단협 등 안건 추진

지난 30일 전국대학노동조합 본교지부(지부장=배경선, 이하 노조)는 99년 정기총회를 중앙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보고와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 승인 등이다.

먼저 지난 15일 학교 당국과의 오랜 교섭 끝에 타결된 임단협 결과를 보면 유비무환 제도도입-조합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임의로 나갈 수 없는 제도로 도입 및 대상 조합원 범위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 △단체협약문구정리-전국대학노동조합 동국대학교지부로 조건의 전환이 있어 단체 협약 전문과 서울캠퍼스 조직전환에 따른 문구정비비 간사들간 조정 △총학생회제도-학내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요구했으나 현행대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직원 인사위원회 구성-기획인사처장(위원장), 사무처장, 경주기획처장, 경주사무처장, 인사관

리팀장, 경주인사관리팀장, 노조추천 2명(양명 각 1명)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4급 이상의 총장 위촉직인 약간 명으로 구성 △기타-전기적 인원충원, 기술직 3급 신설 등이다.

또한 노조는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99학년도 임금을 동결하고 2000학년도 임금인상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정년 퇴직 예정자에게 일정한 시간 사회적공헌시간을 부여하고 팀장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 등의 안을 마련했다.

이번 교섭내용과 관련해 배경선 노조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가능한 직원이 임단협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앞으로 가능한 직원을 비롯한 노조원들의 편의를 위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문과대 9일 동맹휴업 결의

5일부터는 총투표 진행

지난 29일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오종진·사시 이하 비대위)는 '학교당국의 일방적 모집단위 광역화 반대, 학부제 전면재검토, 문과대 발전위원회 건설을 위한 1천명인원 결의대회'를 명진관 앞에서 가졌다. 3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

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는 학내 선전전과 본관앞 선전전을 통해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와 학자 합의안 이행 촉구, 총장과의 공개면담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내일(5일) 오후 문과대 비상 학생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기

간 투쟁보고 및 평가, 이후 학원자주와 투쟁 전망, 총투표와 동맹휴업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학교측에 총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모집단위 광역화 반대를 위한 총투표를 실시하고 8일 문과대 동맹휴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인덕 교수 별세

지난 28일 지병으로

김인덕(불교학) 교수가 지난 28일 지병으로 별세. 영결식이 지난 30일 정각원 앞에서 치러졌다.

고 김인덕 교수는 1969년 불교대학 불교학과 강사로 부임해 30년간 교단에서 '중간학'과 '불교전통 강독'을 강의해왔다.

이와 관련해 불교대학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후학 양성에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오는 2000년 8월 31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 보는 이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고 전했다.

고(故) 김인덕 교수



고(故) 김인덕 교수



공부합시다... 지난 18일 출근위에서 실시한 모토의 시범결과 발표회 학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타대학과 비교해 짧은 막대그래프는 비비보다는 이의 일가에 한숨이 절로 나오게 한다.

교직원 모집

1. 모집부서: 일반직(전산) 서울·경주 각 0명
Client/Server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야
Server 및 Network 관리 분야
2. 응시자격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컴퓨터와 관련된 전공자
· 대학교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80점(백분율환산점수) 이상인 자
· 1969.11.1. 이후 출생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가산점 부여
* RDBMS 및 4GL을 이용한 응용 Program 개발 및 운영 경력자(PowerBuilder 등), Network 및 Unix System 운영 경력자 또는 정보처리 관련 기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합격자 사정시 우대함.
3. 전형방법: 필기시험(영어, 논술, 전공), 면접(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 양식, 반명함판 칼라 사진 부착) 1부
나.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점수 기재) 각 1통
다. 자격증 사본(소지자) 1부
라. 경력·보훈증명서(해당자) 1통
마. 불교도신행증(최종합격자에 한함) 1통
5. 접수기간: 99. 10. 4.(월) - 99. 10. 6.(수) 17:00까지
6. 접수처: 서울캠퍼스 인사관리팀
* 미비된 서류 또는 우송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99. 10. 9(토) 09:30, 본교 서울캠퍼스 교시강
* 필기시험 합격자는 99. 10. 13 14:00에 공고 예정(본교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함).
· 문의처: 서울캠퍼스 인사관리팀(☎02-2260-3859/60) 경주캠퍼스 인사관리팀(☎0561-770-2023/4) http://www.dongguk.ac.kr(지원서 등을 Down 받을 수 있음)

기획인사처

직업선호도검사 및 취업직무적성검사 실시

재학생들의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직업선호도 검사와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직업선호도 검사
· 직업선호도 검사란? : 직업과 관련된 성격특성, 업무능력, 선호하는 활동, 가치관 및 생활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줌.
· 대상: 동국대생 누구나
· 일시·장소: 10월 12일(화) 오후 4시 ~ 5시(중앙당)
· 비용: 무료
· 주관: 서울인력은행
2. 취업준비 직무적성검사
· 검사종류: 리쿠르트 직무적성검사 (기업에서 채용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을 이용하여 실제대비에 도움을 줌)
· 일시: 1회 - 10월 14일(목) 오후 3시30분 / 2회 - 10월 14일(목) 오후 6시
· 장소: 중앙당
· 비용: 3,000원(나머지 비용은 상담실 및 졸업위에서 지원)
· 접수: 10월 12일까지(학생상담실·졸업준비위원회)

서울캠 학생상담실·졸준위

발간도서 안내

| 도서명 | 가격 | 도서명 | 가격 |
|------------|--------|--|--------|
| 한국불교사상사연구 | 7,500 | 한국의 불교사상 | 3,500 |
| 백제불교사상연구 | 7,500 | 삼국시대의 불교 | 2,800 |
| 조선전기불교사상연구 | 8,500 | 불교문화사 | 5,000 |
| 불교와 제파라 | 30,000 | 불교학개론 | 6,000 |
| 한국불교사문화론 | 5,000 | 보조선사, 직언사, 현화사비평 | 10,000 |
| 한국불교문화론 상 | 6,000 | 지리산선사선행사대간사비평 | 5,000 |
| 한국불교문화론 하 | 5,000 | 성과 자아 | 6,000 |
| 불교와 인간 | 7,000 | The Ferryboat and the wayfarer (영역한국불교사) | 4,500 |

| 도서명 | 가격 | 도서명 | 가격 |
|--------------|--------|--------------|--------|
| 평안방언연구 | 7,000 | 한국과학사상사연구 | 10,000 |
| 한국연구사 | 9,000 | 생명과과학 | 6,000 |
| 학교연구 | 3,800 | 한국사상 경제사 | 12,000 |
| 원시문·일어의 연구 | 6,000 |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 8,000 |
| 국어학개론 | 5,500 | 마르크스·체인 | 2,500 |
| 고전기사의 실증적 연구 | 12,000 | 시계열 분석 | 3,800 |
| 문학과 교양 | 8,000 | 철학개론 | 4,000 |
| 재무회계연습(문제편) | 9,000 | 국어학문의 이론과 실제 | 4,000 |

| 도서명 | 가격 | 도서명 | 가격 |
|-------------|---------|--------------|--------|
| 회람비국론 | 3,500 | 중세서양과학의 조상전래 | 3,000 |
| 현대 인권론 상, 하 | 각 2,800 | 한국경제의 진로 | 23,000 |

| 도서명 | 가격 | 도서명 | 가격 |
|---------------|-------|------------|-------|
| 노예의 길 | 6,000 | 칸트대 비트겐슈타인 | 6,000 |
| 중국과제도(사회사적연구) | 4,000 | 전장과 국가 | 4,000 |

| 도서명 | 가격 | 도서명 | 가격 |
|---------------|--------|-------|--------|
| 신라연구논저록 | 8,000 | 단국대 | 30,000 |
| 한국금석총록 | 5,000 | 소장품등록 | 8,000 |
| 광개토태왕비석초기탁본집성 | 70,000 | | |

| 도서명 | 가격 | 도서명 | 가격 |
|----------------------------|--------|----------------|--------|
| 양주동전집(1집)(12권) 가격: 320,000 | | | |
| (1) 고가연구 | 34,000 | (7) 국문학정화, 상하3 | 31,000 |
| (2) 여요전주 | 16,000 | (8) 민중문화록, 상하 | 28,000 |
| (3) 국어학연구논고 | 14,000 | (9) 세계문화록, 상하 | 35,000 |
| (4) 문주, 인쇄집기 | 23,000 | (10) 논문 | 27,000 |
| (5) 지성의 광장 | 15,000 | (11) 평론의 2편 | 37,000 |
| (6) 조선의 맥박 | 36,000 | (12) 수필의 4편 | 23,000 |

| 도서명 | 가격 | 도서명 | 가격 |
|--------------------------------------|--------|---------------------|--------|
| 이침배 전집 (총12권중 5권, 기간 5권) 가격: 80,000원 | | | |
| (1) 영미시절작선 | 12,000 | (4) 포스트모던사회의 문화의 위기 | 18,000 |
| (2) 미국초절주의자영인선 | 15,000 | (5) 광인의 년 | 20,000 |
| (3) T.S.엘리엇 문학비평 | 15,000 | | |

| 도서명 | 가격 | 도서명 | 가격 |
|-----------------------------|--------|--------------------|--------|
| 한국불교전서 1집(12책) 가격: 720,000원 | | | |
| 한국불교전서 제1책(신라시대) | 60,000 | 한국불교전서 제7책(조선시대) | 60,000 |
| 한국불교전서 제2책(신라시대) | " | 한국불교전서 제8책(조선시대) | " |
| 한국불교전서 제3책(신라시대) | " | 한국불교전서 제9책(조선시대) | " |
| 한국불교전서 제4책(고려시대) | " | 한국불교전서 제10책(조선시대) | " |
| 한국불교전서 제5책(고려시대) | " | 한국불교전서 제11책(보유권 1) | " |
| 한국불교전서 제6책(고려시대) | " | 한국불교전서 제12책(보유권 2) | " |

서울캠 출판부

동약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낳은 '사생아'

고용안정과 임금정책 등 다각적 대책 마련돼야

손님없는 잔치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오늘부터 백상체전 예선전이 치러집니다. 내일 있을 경기 출전 선수들도 뽑아야 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5분전, 언제부터인지 과대표인 듯한 학생들이 수업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애원하는 모습이 강의실 이곳 저곳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다. 1:1로 학생들을 만나며 달래는 대표학생들의 목소리는 마치 토라진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음성처럼 조심스럽기만 하다.

"00야, 너 건강하잖아, 선수로 뛰어봐. 우리 과거 이번에 우승해야 되지 않겠나?" "체육대회 해봤자 힘만 빠지지, 어유~ 난 싫다."라며 매정하게 뿌리치는 학생이 보인다.

그러자, 대표학생은 옆 친구에게 다시 말을 건넨다.

"00야, 너 야구 잘하지? 지난 번 시험 때 폼 나던데, 같이 한번 뛰어보자"라며 안타까운 몸부림을 치기도 한다.

이를 보며 웅성웅성 거리는 학생들, 마치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눈치없는 미소를 보내는 이도 있다.

결국 시간에 맞춰 수업을 들어오신 교수님께 들어오도 때밀린 듯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 앉는 대표학생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수업 종료 후, 재빨리 자리를 뜨고 나가는 학생들의 등뒤엔 근심 가득한 대표학생의 얼굴만이 빈 강의실 안을 가득 메운다.

강의실을 벗어나 톨비니동산으로 발을 돌리자 눈 앞으로 펼쳐지는 대운동장에는 등성 등성 모여앉아 경기를 응원하는 학생들과 축구와 농구 시합에 진땀을 빼고 있는 학생들이 보인다. 스탠드 한쪽에서는 '영차'라는 구호와 함께 학과별 줄다리기 시합이 힘겹게 벌어지고 있다. 학부제 실시 이후 체육대회에서조차도 보기 힘들어진 단합된 모습, 공을 굴리며 몸을 부대끼며 흘러진 진한 땀방울의 맛마저도 느끼려 하지 않는 지금 우리들의 닫힌 마음속에서 읽을 수 있는 건, 가을 하늘이 높은 줄은 알지만 정작 그 아래 펼쳐진 운동장이 넓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고 있다는 아쉬움 뿐이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자장면 배달원, 건물 청소부, 건설 일용 노동자, 학원강사, 파견직 노동자, 파트타임 근무자, 대기업 사내 하청노동자.....

이들 노동자들은 사회보장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산업재해나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같은 작업장에서 훨씬 낮은 임금을 받으며 차별과 소외를 당하면서도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군말 없이 일해야 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주변에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현실이다.

98년 7월,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 작취로 간주돼 법으로 금지되었던 '파견 근로제'가 합법화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넘어섰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처사에 대응할 만한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 쉽지 않아 점점 그 피해는 늘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이라고 불리는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노동자의 상당부분을 정규직 임금지 60~70%만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로 교체하여 인건비를 적게 지출하고 인력규모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고용구조는 점차 사무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파견 및 계약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천대시 하는 경향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서열화가 조장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 당하는 불이익에 대한 불만과 정규직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구실로 미묘한 갈등구조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한라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결성돼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하청노동자도 인간"임을 말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노조 설립 필증이 나오자마자 하청노조 간부들이 일했던 몇몇 업체들이 한라중공업으로부터 '계약폐기' 형식으로 정리되는 등 부당한 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8월 한라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위탁 경영되면서 하청노동조합원들은 대부분 해고된 상태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라중공업 노조파업에는 해고된 하청노동자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연대와 사내하청노조의 영향력



건축경기가 살아나기만을 비리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새벽 인력시장. 일용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에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연대의 김미숙(가명·25세) 씨는 "현 시기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미래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합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 시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바른 관계형성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과거 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비롯한 교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실상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지난해 현대 중공업의 파업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용인한 것에

서 드러났듯이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리해고 대상 일 순위의 자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여러 산별노조 연맹에서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마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수준 하락과 고용 불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 모든 노동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등의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의식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세계시민의 힘으로 금융자본에 대항한다"

오는 6일부터 대구라운드 개최 ... IMF 제소운동도 펼칠 터

대구라운드 국제대회가 바로 그것.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구라운드 한국추진위원회 주최로 대구은행 연수원과 국제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세계의 주요 시민, 경제, 노동, 종교, 언론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의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국내개혁의 강화를 추구하고 동아시아의 지역연대 및 세계주요시민단체 및 국제기구들과 적극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7년 한국에 담긴 위헌위기로 시민사회는 그 경제적 기반이 흔들린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거대하게 축적된 금융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국제투기자본으로 전환,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금융자본의 세계화에 대응 할 수 있게 전 시민의 역량을 모아 시민사회의 세계화를 구축하는데 이번 행사의 의의가 있다.

대구라운드 한국위원회 이찬근(무역학) 인천대

교수는 "현 시기 국제금융질서가 국제통화기금과 G-7 주도의 일방통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채권국과 채무국이 함께 참여하는 쌍방 통행형 뉴라운드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라운드 한국위원회와 전국금융노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민주연대'는 "국제통화기금이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 국제투기자본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통화기금 제소위원회를 만들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일 준비에 있다. 제소준비위원회는 이번 소송에 지더라도 외국의 시민단체들과 전문가와 연대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이 개최되는 대구라운드 국제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 제소문제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국민회의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7조 일부수정 시사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존폐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대행 등 정계 인사와 민가협 회원 등 사회단체 인사 70여명이 참석해 격렬한 토론을 펼쳤다.

국보법 존치론자인 동아일보 육정수 논설위원은 국보법은 "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며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보법을 개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과)는 "인권침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고무찬양(7조), 불고지(10조) 등의 조항은 모두 국가안보보다 독재정권의 강화를 위해 날치기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삽입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상의 문제라면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국민회의의 유진호의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7조에 대해서는 존치론을 폈다. 유의원은 "7조 1항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고치면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청석에서 "간첩행위를 현 형법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도 7조의 완전 삭제는 부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유 의원은 "그 문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반국가단체 규정인 국가보안법 2조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석태 변호사는 "남북합의서 체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은 이미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은 막다른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진우 변호사와 지민련의 이동복 의원은 "북이 적대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반국가단체로 보고 그외에는 주권국가로 인정하면 된다"며 북한에 대한 이중적 기준을 제시했다.

사회부



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위치한 E.MART입구에서 구미 지역 운수 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농성을 벌였다. 이 상점은 구미, 선산, 왜관 등 타 지역까지 버스를 운행해 소비자들을 썩살이고 있다. 무엇보다 E.MART를 비롯한 대형할인 마트의 수익금이 중앙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파탄이 우려돼 문제가 심각하다. 박양우기자
wooo@mail.dongguk.ac.kr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구속과 언론개혁 논단

언론의 책무는 권한남용이 아닌 공공성의 발휘

언론에게 주어진 공공성 발휘 책무 탓에 언론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누려왔다. 언론 경영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았으며 언론 활동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같은 지위는 어느 틈엔가 권한으로 바뀌고 말았다. 언론은 책무를 미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본래의 책무인 공공성 발휘를 사적 이익 취득으로 전향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 즈음해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언론 개혁은 언론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자는 지극히 단순한 요청이다. 언론이 사유화되어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한 사회 전반의 왜곡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 언론이 정치와 결탁하고, 재벌을 비호하고, 소비주의를 조장하는 한 사회적 공공성은 결코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 개혁은 절대 절명의 명제이기도 하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개혁의 방법론을 말하는 자리에선 서로를 말을 아끼고 있다. 언론을 둘러싼 무순의 커가 너무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그 실태를 풀어낼 지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국가와 재벌 그리고 언론은 안정된 권력의 삼각구조를 활용하며 각자의 편의를 도모해왔다. 그런 탓에 언론 개혁의 주체를 설정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게 되었다. 언론의

자기 혁신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뿐이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언론개혁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커 거부되고 있으며 국가로서도 정통성 시비 탓으로 섰다 나서지 않으려 한다. 방법론의 실종이라는 미궁 속에서 언론은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운을 누려온 셈이다. 언론개혁이 늘 구두선으로 그치고 타협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바로 그 탓이다. 지금의 언론구도를 깨는 일이 언론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에게 부담되는 일이란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전 정권에서도 언론 개혁의 가치를 들기는 했지만 언론과 타협하는 수준에서 마감하고 말았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운운하였지만 지지부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등을 밀며 방송과 신문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정권이 노정했던 한계를 쉽게 극복해내진 못했다. 언론은 여전히 쉽사리 권위적 호풍으로, 합리적 설득으로 변화되기엔 너무 큰 권력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차에 겨대 일간지 사장이 구속수감되는 사건을 맞았다. 구속 이유는 조세 포탈 혐의였지만 당사자들은 표적 수사라는 음모론을 제기하였고 일부 정치권은 언론탄압으로 규정하였다. 중앙일보보신론사 죽이기의 서막이라며 동료 언론사

들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제 언론 기구들에도 도움을 청했다. 정부의 외곽을 치는 전술로 국면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국제 언론인 협회(IPJ) 등은 이 사건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성명서들을 발표하였다. 야당과 전임 대통령도 그에 응답했다. 지난 대선 때 중앙일보가 보여준 보도 태도에 대한 보복이라고 야당이 나섰다. 전임 대통령은 70년대에도 볼 수 있는 명백한 독재정치 형태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은 개인 비리에 관한 것으로 언론과는 관련이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 정치권과 언론계는 이 사건과 언론개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계와 정부의 관계로만 축소되어서는 이 사건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단순한 언론과 정부의 존재 이유가 되는 시민사회를 제쳐두는 우둔한 담이 담겨져 있을 뿐이다. 신문과 정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두 주체간의 단선대립으로만 파악한다면 그것은 단선적 인식에 그치고 만다. 언론개혁에 대한 관심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었고 지금도 운동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언론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공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려는 등의



원용진 교수 시과대 신문방송학과

요점을 밝혀왔다. 그들 이야말로 언론개혁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계는 언론개혁을 둘러싼 사안들에서 이들을 누락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이 언론탄압인지, 국가에 의한 정당한 언론개입인지, 치졸한 보복인지가 이 제 3의 주체가 명료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시와 공정한 평가 주체가 될 것이다. 홍사장 구속수감은 언론 개혁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겠다고 평가해내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언론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오정일 수 밖에 없다. 언론 개혁은 사유화되는 언론을 경계하고 공공성 발휘에 더욱 관심갖도록 하자는 시민적 요청이라는 목소리를 간파해온 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풀어내야 하는 퍼즐처럼 보일 수 있다. 아직도 "자장님 힘내세요"를 외치는 홍사장의 신문을 피하고 저자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설

사립대 재정확충 방안과 등록금 인상

내년부터 전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대학은 더이상 당국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학재정상 지난 IMF 이후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될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모든 것을 대학에 떠넘기는 처사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학생들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개강과 동시에 전국 50여개 대학이 기성회비와 수업료 통합고지에 반발,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의 학생과 대학간의 소요가 계속되고 있다. 학생회 간부가 징계를 받는가하면 학생들은 수업료를 법원에 공탁하는 등 이번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 등록금마저 인상된다면 학생들과 학교측과의 마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또한 'BK21' 사업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사립대학이 재정확충을 위해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시행되는 등록금 자율화정책은 'BK21' 사업의 허구성을 유감없이 증명한다. 서울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일부 국립대학만을 집중 지원한 교육부의 'BK21' 사업은 사립대를 위축시켰으며 그것은 곧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돼 학생들의 숨통을 더욱 짓누르게 생겼다. 다른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본교도 등록금 인상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교도 내년부터 수업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로 인한 학교측과 학생측의 실망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씁쓸한 전망을 하게 한다. 이러한 소모적인 실망이는 학교, 학생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또한 재단법인도 학교발전 위해 법인전입금을 확충하라. 학생들은 불이 아니다.

지역중심대학으로서 경주캠이 나아갈 길

수해로 피해를 입은 현곡면 일대를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 '봉사활동'은 단순한 지역 봉사활동을 넘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안겨주고 있다. 우선 경주캠이 지역대학으로서 경주지역을 위해 기여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으며, 날로 침체해가는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 지역에서 인재를 더욱 굳혀 나가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지난해 실시된 LG구조조정의 경주캠에 대한 내용중 '독자적 체제구축', '지역과 연계한 대학으로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명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좋은 의도와는 달리 봉사활동을 행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준비부족으로 인한 인력배치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참여 인식부족, 일부 학생들의 올바른 태도 등이 지적되었다. 비록 농민들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만 인력배치로 인한 문제점은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오해를 낳았고, 결국 능률이 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갑작스레 준비하느라 파생된 문제였지만 세심한 준비와 관심이 농민들에게는 피와 땀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단순한 준비부족으로 돌려버릴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그렇다해도 앞으로 이 지역과 연계해갈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역을 대함에 있어 남이 아닌 동지로 대하고, 때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도 있다. 물론 이번 봉사활동을 비롯해 몇 번의 교류로 경주캠이 하루이ちに 지역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결과로 직결되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학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중앙일보 '99 전국대학평가 분석

"뒤쳐지는 교육환경 앞서가는 개혁이지"

초라하게 드러난 동국의 현실! 중앙일보 주최로 9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전국대학종합평가'에서 올해 본교는 23위를 차지, 중위권대학이라는 자평이 무색해졌다. 97년에 26위, 98년에는 24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상승했다면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교육부의 개혁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96년부터 3년간 '교육개혁우수대학'으로, 지난해에는 '정보통신우수시범대학'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을 볼 때, 학교발전의 축을 전반적인 교육시설 및 여건 등 제반 조건들의 열악함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교육부의 틀에만 끼워 맞추는데 급급했음을 시사한다. 1백15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99전국대학종합평가'는 △교수연구(1백30점) △교육여건 및 시설(1백20점) △사회평판도(50점) △재정경영(1백10점) △대학개혁도(90점) 등 5개의 평가부문을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학과, 한의학과, 토목공학과, 의류학과, 치과대학 등 5개 인기학과와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본

교는 이번 평가에서 자원봉사부문 공동1위, 대학개혁도 12위, 사회평판도 18위를 기록하였을 뿐 다른 부분은 20위내에도 들지 못했다. 교수 당 학생 수, 교수확보율, 학생 당 강의실 면적, 장학금 수혜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교육여건 및 시설평가부문에서 20위권 안에 들지 못한 것은 본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학내 전반적으로 부족한 공간 문제도 있겠으나 교수 1인당 높은 학생 수와 부족한 교수 확보율, 그리고 잠정 늘어나는 학생 정원수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학생당 교육비, 재단전입금 의존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재정·경영부분에서는 낮은 재단전입금과 높은 등록금 의존율이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본교 역시 재단전입금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한편, 이번 평가는 '중앙일보'라는 공신력을 지닌 언론기관에서 진행하였지만 그 평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먼저, 입시철을 1·2개월 앞두고 전국대학종합평가를 실시·발표해 수험생을 겨냥한 상업전략이 짙다는 지적과 함께, 드러내놓고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개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대학평가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인식될 우려도 있다. 이에 몇몇 대학은 평가를 거부하였으며 불쾌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전국대학평가는 현시

기 본교의 위치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학교·학생 등 누가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학교만 발전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대학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 만큼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일치단결, 동국발전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김진이 기자 ring@cakra.dongguk.ac.kr

Table showing academic performance data for a student, including scores for '성적' (Grade), '점수' (Score), and '평점' (Grade Point Average). A large 'A+' is prominently displayed over the table.

Advertisement for Posco's '포항제철' (Pohang Iron and Steel) featuring the slogan '만족하지 마십시오' (Do not be satisfied). The ad includes a poem about the company's history and a call to action to visit the website www.posco.co.kr.

시민이 21세기를 지배한다

‘NGO는 참여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 것이다’

20세기말이자 새로운 천년의 문턱에 서 있는 인류에게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절망은 불과 약 2백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시장 자본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각각 시장에 의한 문제의 외재화(externalization)와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고, 희망은 그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서 NGO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봉건 국가가 무너지고 근대 국가가 성립될 무렵의 많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나, 산업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시기의 많은 사상가들은 이 새로운 사회가 과연 인류에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고민했었다. 그럼에도 세상을 지배한 것은 상공업자의 사익 추구를 정당화시키는 시장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합법적인 통치와 선거권, 기본 생활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였다. 더욱 사회주의의 붕괴는 두 이데올로기의 승리로 간주되었고, 두 이데올로기에 대한 견제세력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다. 금융 자본의 세계화의 등장인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익 추구는 물질적인 복지를 증가시키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환호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환경 파괴를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증가시키고 자원을 매개로 한 인간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 더욱 역사의 맹목적으로 표현되는, 확대 재생산물에 도달해야 하는 구조의 강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가 권력은 한편으로는 사익 추구를 정당화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

만 대부분 후자의 역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뿐 아니라 권력 행사의 정당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NGO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물론 NGO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희망'과 연관된 NGO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회 질서라는 신화와 국가 권력에 의한 공공선의 유지라는 신화를 깨고 시민의 건전한 보편적인 판단력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과 권력의 지속적인 감시, 대응 단계로 태어난 것이다. 시민으로부터 권력과 자본의 자립화에 대항하여 시민에 의한 자본과 권력의 통제를 그 목적으로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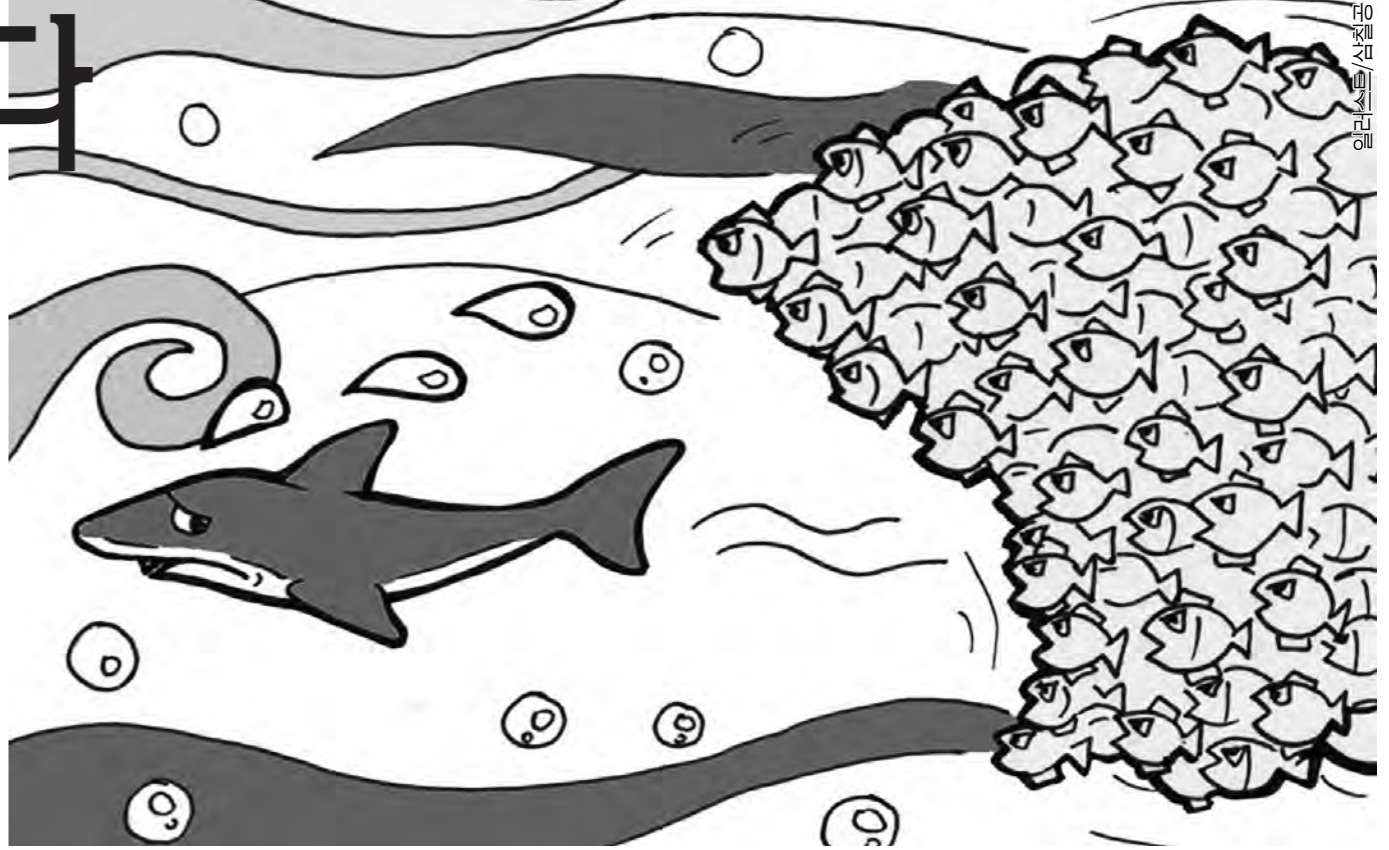
NGO는 근대 국가의 기초인 합법적인 공간의 틀 내에서 그리고 현대 산업 사회의 도도한 흐름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간접 민주주의와 형식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남용-환경 파괴, 다국적 기업의 횡포, 금융 자본의 세계화, 과학 기술에 의한 위험, 부정부패, 조세의 형평성, 입법 절차, 공익법의 제정 촉구, 사법 감시, 국가 재원의 사용, 인권 침해 등 - 에 대항하여 공공선의 추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단체는 이러한 목표에 동의하는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의 공간을 제공 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 눈앞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참여의 공간인 것이다. 개인의 무력감, 소외, 사회의 무규범을 극복하고 사회의 권위, 상호 의존성, 더불어 사

는 공간으로서의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임을 인식한 시민들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개인의 사익 추구 행위가 공공선을 파괴할 수 있음을 인식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의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국가의 합법적인 공간에서 자본과 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성의 요구로부터 출발한 시민 단체는 그러나 그 정당성 요구의 범위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시민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가간의 상호 불가침과 상호 불간섭 조약 이후 전세계적으로 문제 해결의 범위는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환경·금융자본의 세계화·전세계적인 빈부의 격차·과학 기술에 의한 위험의 증가·인권 침해 등은 더 이상 국가와 UN에 의한 문제 해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시민 단체들에 의한 국제적인 연대이다. 예를 들어 이웃 나라의 환경 파괴는 자국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지만 국가간의 간섭이 불가능했던 공간을 시민 단체들의 국제적인 연대(Global Governance)에 의해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 단체들에 의한 국제적인 연대는 보다 일반적으로 국민 국가의 틀 내에서 자본과 권력의 행사에 의한 역사의 맹목적성을 인류의 의지에 의한 역사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이다. 이 흥 군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99 서울 NGO 세계대회



99 서울 NGO 세계대회가 '뜻을 세우고, 힘을 모아, 행동하자'

라는 슬로건아래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 공원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다. '21세기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이번 대회는 지난 90년대에 있었던 환경, 인권,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각종 NGO 세계대회에서 도출된 결의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새로운 천년이라는 문명사적 전환점에서 NGO들간의 연대 강화와 교류 증진, 그리고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

NGO와 정부기관 및 유엔기구와의 협의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희호 여사를 명예대회장으로 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 NGO 협의회(의장 아파브 마푸즈), 유엔공보처 NGO 집행위원회(위원장 일레인 발도프), 경희대학교·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총재 조영식)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세계 NGO 들의 한마당이 될 것이다.

이 행사에서는 전체회의와 주제별종합회의, 분과회의 등의 학술프로그램과 각종 문화행사 등이 풍성하게 벌어질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원뿔 벨 예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한 저명인사들을 연사로 초빙하여 20세기를 회고하고, 21세기 NGO의 입문과 역할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행동규범을 설정하

는 서울 선언문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대회 전참가자들이 NGO의 이념을 알리고 구현하기 위한 퍼레이드를 벌이는 99 서울NGO세계대회 평화의 행진을 비롯 한국·일본·중국 등의 아시아 민속예술제, 오페라 돈조바니 등의 공연이 있을 것이다. 녹색연합 등의 국내 시민단체와 아시아 환경협의회, 국제 사면위원회 청소년평등센터 등의 해외시민단체, 일반 참가자 등 총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행사는 전세계 NGO들의 큰 잔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에서는 NGO 대회가 시민단체가 아닌 한 대학에서 주최했다라는 것에 우려하기도 하나 이번 대회가 NGO들간의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획부

시민운동의 등장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켜 나가는 시민운동은 60년대 이후 서구에서 있었던 새로운 사회운동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시민운동도 사회운동의 한 부분임은 확실하지만 "새로운"이라는 접두사가 의미하는 바는 과거의 전통적 사회운동과 구별된다는 의미이다. 전통적 사회운동으로는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재야운동, 노동자와 농민운동,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혁명도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환경과 평화, 소비자, 주민자치, 여성, 대안교육, 시청료납부 거부나 통행료거부 운동 등의 다양한 운동들은 분명히 전통적 사회운동과 구별된다. 이 새로

운 사회운동은 일상생활의 모순이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로부터 문명비판에 이르기까지 작은 담론에서 거대 담론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이 우선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탈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조직의 형태도 중앙 집중적이라기 보다는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과거의 전통적 사회운동의 주체가 집단적 동질성이 강한 동일 사회집단이나 동일계급이 주체가 되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사회운동은 탈계급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사회운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자본주의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반

적인 높은 교육수준, 체계적으로도 효율적인 사회 제도, 노동의 분업과 상당 수준의 전문성, 사회혼란과 빈부의 격차를

다양한 주제·탈물질주의 추구·탈계급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은 자본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소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복지제도 확립,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전문지식과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광범위한 중산층을 양산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중산층들은 시민사회를 통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들의 생활세계를 보호하고, 동시에 보다 많은 권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른다.

이런 시민사회는 그러나 각국의 문화적 배경이나 자본주의 성격, 그리고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유럽과 같이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종교개혁과 사회혁명을 경험한 사회와 일본과 같이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한 사회개혁과 강력한 유교적 전통에 단절적이기보다는 계승적 역사발전을 한 사회의 시민사회는 매우 관대한 성격과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구의 시민운동은 이러한 시민사회적 배경에서 생성되었으며, 동시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해 촉진되었다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전형적 시민운동인 여성운동이나 평화운동 등이 이미 1백여년전에 발생했으나 본격적인 시민운동은 60년대 후반 반전운동과 학생운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월남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당시 기존의 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추구했던 학생운동은 그것이 비록 단기간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촉발시켰다. 우선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당이나 시민당 등의 좌파정권이 탄생되었고, 지역적 수준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운동들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다. 또한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운동들이 출현하기도 했다. 60년대에는 반전운동과 피

운동, 그리고 학생운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고, 70년대에는 주민운동, 반핵운동 등이, 그리고 80년대에는 평화와 환경운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리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시민운동이 그 전에 비해 그리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 운동의 결과 환경적 조건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졌으며 군비축소 또한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화운동에 뿌리를 둔 한국의 시민운동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아직 성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차명제
배달환경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시민운동, 급속한 성장 이뤄내 재정열악, 전문성 부재 등 '문제점' 지적 법적 지원 환경 개선 등 활성화 대책 있어야

제5의 권력

시민의 힘이 매섭다.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의 길고 긴 줄다리기 속에서 얼마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동강댐 건설 전면 유보'를 얻어냈다. 이제 시민단체의 힘은 정부의 정책까지도 바꾸고,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예산감시단 활동,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의회발전봉사단활동, 환경운동연합의 대만해피기들의 북한반입금지 운동 등도 시민운동단체들의 성과로 꼽히며 '시민운동은 제 5의 권력'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시민운동의 발전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외국과는 달리 반독재, 통일운동,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뿌리로 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이하 민민운동)에서 87년 6월 항쟁 이후 범위가 환경, 여성, 소비자, 정치개혁 등의 분야로 넓어져 95년 지방자치제의 시작과 더불어 영역별로 분화되어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예를들면 환경분야의 경우, 쓰레기, 습지, 교통 등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초기에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개량주의, 중산층 위주의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시민운동이 짧은 시간안에 활성화된 것은 운동의 필요성과 시민의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재정권 하에서 계속해서 억눌려왔던 시민들의 욕구가 민주화와 함께 분출되고, 민민운동이 이를 담보해내기에

는 역부족이었다.

시민운동은 국민의 정부 들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원주의 사회라는 특성도 있었지만 대중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정책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정부는 젊은 피 수혈을 외치며 시민단체 출신의 신진인사 영입에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시민운동의 한계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시민운동은 '힘들고, 배고픈' 운동이다. 1백여년의 전통을 가진 서구의 시민운동과 달리 1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성숙도는 낮다. 국민들이 시민단체에 거는 기대는 큰 반면, 정작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무임승차 의식구조'가 팽배한 것이다. 또한 외국은 직장인들이 4시에 퇴근해서 그 이후의 시간은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구조가 미약한 현실이다. 공식집계된 단체수로는 1만여개로 결코 많은 수에 해당되긴 하였지만, 정작 토양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후배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운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제일 힘들다는 한 시민단체 간부의 고민처럼 열악한 재정문제 또한 시민운동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운동가들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은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인 사회감시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각 시민단체는 회비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나 현실

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의 회비납부율이 70%로 가장 높으며 환경운동연합은 평균 회비납부율이 50~60%, 경실련·녹색연합은 25~26% 수준이다. 그외에 다른 단체는 10%를 밑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린피스 만이 회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이를 확인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참여연대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새 길을 열 것으로 주목된다.

요즘은 정부의 간접적 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은 경우 시민운동의 정부 지원은 '국민세금이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진다'라는 철학아래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에선 아직까지 이런 정신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편,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공공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법적지원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시민단체(비)상근 간사들의 전문성 부재,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의 정치 지향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시민운동의 활성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시점을 도약의 시기로 삼아 더 발전된 참여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성원 모두가 열린 논의를 통해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박영실 기자
youngsp@cakra.dongguk.ac.kr

시민단체 탐방-한국불교환경교육원

생태주의·생명운동 전개

자기변화와 사회변화를 함께 이루기 위해 수행과 운동 병행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교육원'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 단순히 '환경을 살리자'라는 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 유정길 사무국장은 "환경을 말할 때 자연환경만을 언급하는 것은 '천박한 생각'이라며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환경문제는 노동문제, 여성문제, 노인문제 등의 하위범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따라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단순히 환경만이 아닌 생태주의·생명운동을 하는 단체라는 것이다.

지난 88년 3월 '한국불교사회교육원'으로 개원한 뒤 94년 6월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을 전개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환경문제에 관련한 사상과 이념을 제시한다. 또한 각 지역의 환경운동단체를 조직화해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낸다. 아울러 운동의 '동력'이기도 한 불교 내의 환경운동, 이를테면 사찰환경을 제대로 가꾸는 등의 활동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봄, 가을에 생태학교와 생명운동아카데미를 열어 일반인과 전문인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생명운동 작은대학을 개최한다. 연구조사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생태학교를 열어 일반인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사업과 연구자료집 발간도 꾸준히 이뤄지고 전국기능운동본부, 사찰환경보존위원회 등과의 연대사업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유정길 사무국장은 환경문제는 "지도자의 리더십 훈련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매년 지역 환경지도자 워크샵과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샵을 진행한다. 올해도 지난 6월에 수원에서 열려 1백여개 단체 3백30여명의 환경활동가가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샵에 참여했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 2층에 위치해 있다. 정토회는 자기변화와 사회변화를 같이 이루기 위해 수행과 운동을 함께 하는 기관이다. 그곳에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외에도 제 3세계

복지지원단체인 'JTS'와 북한·탈북난민 돕기단체인 '좋은 벗들' 등 다른 NGO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매일 아침 9시에 '여는 모임'과 오후 6시 '닫는 모임'을 함께해 서로의 활동상황을 공유한다. 또한 매일 예불과 명상을 함께 하는 등 수행도 거르지 않는다.

자연과 인간의 일체를 위해 생명존중사상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토대로 인간은 자연에서 왔고, 자연에 의해 살리며, 자연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체득하게 하는 단체가 바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인 것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대학·대학생 그리고 NGO-성공회대 조희연(사회학, 시민사회복지대학원)교수 인터뷰

“앞으로는 시민사회를 향한 대학, 대학생이 강조되어야 할 것”

지난 해 한 일간지에 일본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1순위가 시민운동가'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최근 우리 나라 대학 내에서도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양대의 제 3섹터 연구소, 경희대의 NGO 지도자 과정, 성공회대의 NGO 학과 등이 그러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성공회대 조희연(사회학)교수에게 NGO 학과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았다.

이 NGO 활동가이다.

-NGO라는 실천적 성격상 학과의 수업방식도 남 다를 것 같은데.

=총 5학기제로 1년간의 기초과정과 1년간의 전공과정 후에 나머지 1학기는 해외 NGO 학과 등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교수가 인정하는 한에서 외부강좌도 학점으로 인정한다.

-주위의 반응은 어떤가.

=신설 당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NGO 활동이 사회 주변적 활동이 아닌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학과의 중요성도 함께 인정받고 있다.

-대학, 대학생과 NGO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3각구도를 설정, 이를 대표하는 것을 각각 정부, 기업, NGO 라고 본다. 그런데 기존 대학과 대학생은 국가(정부), 시장(기업)만 향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시민사회나 NGO를 향한 대학, 대학생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과거 학생운동의 역량이 정치 투쟁에 집중되었던데 반해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면서 학생운동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건설적 역량이 환경, 인권, 노동자 등 다양한 NGO 이슈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NGO 학과 이외에도 NGO 실습과정(3학점), NGO 연수(9학점) 과목이 있으며, 학생들에게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도 필수화 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돈을 받으며 직업으로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내면서 일을 해 주는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 대학생활 동안에 환경, 소비자, 복지, 핵문제 등 직업 외에 자기 관심 영역을 설정한 후 평생 시간과 몸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삶의 주제를 정했으면 한다.

박영실 기자
youngsp@cakra.dongguk.ac.kr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동티모르 대학살중단과 동티모르인의 자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집회 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한강에서 뱃목시위를 하고 있는 환경연합회원들과 동강주민들의 모습.

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 전원석방·정치수배 해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물쇠를 끊어버리자

얼마전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요구하며 삭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치수배자가 된 사람들이 3백여일이 넘는 시간동안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땅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인권의 사각지대, 민주주의의 불모지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초보적인 민주적 권리마저 보장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새날을 여는 민주자유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경주캠 봉사활동

수마로 쓰러진 벼, 사랑으로 일으킨다

‘지역과 함께’ ‘농민과 함께’ ... 참된 봉사 실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 준비 선행돼야

‘농촌의 현실을 인식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대학’이 되기 위하여 지난달 29일 4천여명의 온방골 식구들은 인근 농촌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세우며 농민들의 쓰러진 마음을 달래주었다. 지역사랑을 스스로 실천한 온방골 식구들의 얘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참된 사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을 하기에 첫걸음이다”
지난 해 이맘때쯤 5천여명의 경주캠 학생들은 저마다 낫 하나씩을 지니고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농민들에게 향했다. 5천여명이 우르르 들녘 전체로 번져나가 인산인해를 이루자 얼마 지나지 않아 농민들의 얼굴엔 팍팍함과 함께 미소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들 하나하나의 손놀림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열매로 승화되었다.
농민들은 열매였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앞으로 계속 펼쳐지기를,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1년이 지난 후 다시 농민들에게 시련이 닥쳐왔고 우리의 힘을 필요로 했다. 협동심과 봉사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다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도 저들을 위해, 또는 나를 위해 바친다. 진정한 배움이란 책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얻는 것이다.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4천여명의 학생과 교수, 직원들이 대 운동장에 집결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차려차례 출발하고 본격적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농촌은 또 다시 젊은이들의 활기로 뒤덮이고 들뜬 조급이라도 더 그들의 손길에 와 닿길 기다린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그랬듯 봉사활동을 바라보는 주최자, 참가자, 수혜자의 입장은 그리 곱

지만은 않다.
주최측은 “지역발전과 봉사차원에서 필요 한 일이지만 지속적인 요구는 들어주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 학생들은 “농민을 이해하고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쪽이 있는 반면 일부는 “공부하러 왔지, 일하러 왔는가. 남의 일에 신경을 만큼 한가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또, 수혜자 역시 “아직 손 불 논이 많은데도 오후 5시쯤에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서 아쉽다”고 하는가 하면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점심식사를 많이 준비했는데 적게 오는 바람에 손해만 봤다”며 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명분만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준비와 과정속에서 진정한 참여만이 명분 이상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행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시도했다는 만족감, 어느 정도의 일을 성취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등등, 그러나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봉사정신이 진정한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었을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아쉬움보다 만족감이 남았으면 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되었으면 한다. “학교측의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등의 말이 안 나오게.
황성규 기자
dream@mail.dongguk.ac.kr



지역사랑을 스스로 실천하려는 4천여명 온방골 학생들이 인근 농촌으로 떠나기 위해 모여있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일 끝낸 넓어져도 일어나세요.” 온방골 학생들은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취재낙수

닥쳐! 다친다구?

“...온방골에서 현곡면까지...폭주족의 신화는 계속됩니다(!?)”
모두 땀 흘리며 ‘벼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시간에 실컷을 찾아 사라져 버리는 농땡이 족과 함께, 교내에서 활개치던 폭주족들까지 그 모습을 나타냈다는데, 내용인즉, 피약별이래 허리 굽혀 일하는 학생들과 교수님이 보라는 듯 좁은 시골길을 질주하는데만 몰두하는가 하면, 철관 얼굴의 폭주족은 점심시간에만 출현하는 ‘귀인(?)’이었다 하니.
이에 노랑장화를 신고 일하던 한 학생 왈, “입 닥치고 같이 일어나 해”

공주병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용인즉 벼를 세우러 눈에 들어간 한 여학생이 각종 벌레들을 보고 놀라 이리저리 뛰어다녀 간신히 버티고 있던 벼들마저 힘없이 쓰러졌다고, 벼 세우러 온 이 여학생의 무차별 폭격으로 그 피해가 더 늘어 농민 얼굴은 근심의 주름살만 늘어 갔다는데.
이에 한 농민 왈, “저 여학생은 벼 세우기보다는 보리밭기를 더 잘하겠어!”

스타워즈!

“...봉사활동때문에 당일 모든 강좌가 휴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석률은 매우 저조하였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벼 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시간에 어떤 양심불량 학생들은 게임방에서 열심히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고.
더구나, 정작 들판에 보이는 학생들은 피해면적에 비해 부족하였는데,
이에 게임방에서 열심히 일하던(?) 한 학생 왈, “신중 프로그램 입하! 벼세우기 크래프트”

농민 인터뷰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농민 김석주씨

들녘에 쓰러진 벼들은 농민들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패이게 한다. 현곡면 상구 1리에 사는 농민 김석주씨를 만나 타들어가는 속 마음을 들어보았다.

- 태풍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 대충 두마지기는 필것이어! 우리 눈은 얼마 안 쓰러졌는데 옆집 눈은 종자가 달라 많이 쓰러졌제. 우리 동네 눈은 산자락에 걸쳐있어 피해가 크제. 그리고 벼가 거의 무르익어갈 무렵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컸던 것 같네. 벼가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미질이 좋지않아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 같아.

- 작년 이어 두 번째로 본교가 수해지역에 봉사활동에 나섰는데 작년과 다른점은?

= 작년엔 벼베는거잖아, 벼베는거는 쉽지만 벼세우는게 무척 어려운거여. 벼 잘세우는 사람도 하루에 70명 정도밖에 못하는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벼세우는 일을 한다는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아직까지 불평 없이 잘하고 있어!

- 이번 봉사 활동에 개선돼야 할점은?

= 누구 논엔 열댓명씩 일하고 어떤 논엔 학생들이 없고, 그래서 옆은 주인에게 미안하게. 버스를 타고 탕기면서 피해상황을 보고 몇 명씩 내려놓고 또 이동해서 몇 명씩 내려놓으면 효율적으로 벼를 세울수 있었는데 그 점이 아쉽구만.

학생들 못대려간 논주인들끼리 술먹고 주장하고 그랬다니께. 우리가 그 사람들 맘을 이해해야제. 1년 농사 망쳤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게 사람람이 아닌가 싶네 그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에 입장으로 고맙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제. 이렇게 두해나 학생들이 일을 도와주니 손자손녀처럼 느껴져. 학생들 수업 빼먹으면서 평일에 오지말고 주말에 2-3일 정도 농촌에 와서 같이 지내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

박양우 기자

woo@mail.dongguk.ac.kr

학생 인터뷰

“농민분들께 도움돼 기뻐”



김명균(한의학 본과2)

수해로 인해 쓰러진 들녘의 벼를 세우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김명균(한의학 본과2) 학생을 만나 보았다.

- 벼세우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 사실 제 의지로 오지는 못했어요. 저희 단과대에서 지금 축제가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고.

그 중 조금이나마 여유있는 저희가 오게 되었죠. 그러나 여기 오게된 걸 후회하진 않아요.

- 벼세우기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점은.

= 처음하는 일이라 배워가며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허리도 많이 아팠어요. 날씨가 무더우니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나중엔 조금씩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 벼세우기를 하며 보람을 느꼈다면.

= 반나절 동안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할 때 다시 세워진 벼들을 바라보니 흐뭇했어요. 왠지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 이번 봉사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번 벼 세우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학점이 주어지는게 좀 아쉬워요. 단지 봉사학점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마치 학생들은 학점이라는 뒷에 걸린 고기 같아요. 무엇보다도 수동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굳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마련하기보다는 학생회, 또는 동아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학생회나 동아리가 작게나마 농민들을 자주 도와드렸으면 해요. 어느 시골이든 인심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마 조금만 도와드려도 농민들은 좋아하실거예요. 다시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해주길 바라요.

<현>

terry@mail.dongguk.ac.kr

메아리

단결과 단합

▲지난 달 28일 오후 4시 평양체육관에서 남과 북의 농구 선수들이 혼합팀을 이루어 코트를 누비는 장면이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그리 깨끗한 화면은 아니었지만 남과 북의 선수들이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더구나 이 통일농구경기는 지난 91년 4월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6월의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이어 8년만에 성사된 것이었으며, 평양에서 남한 선수가 경기를

맞은 것은 90년 10월의 통일축구대회 이후 9년만의 일이었다.

▲‘단결’과 ‘단합’ 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 경기에서 누가 남한선수이고 누가 북한선수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번 경기를 통해 국민들은 남과 북은 한핏줄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분단’이라는 것도 뼈저리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비록 이번대회가 ‘현대’라는 거대

벌이 주도해 성사된 것이긴 하지만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급격하게 일어났던 남과 북의 관계를 다시 녹아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후에 진행될 남과 북의 교류에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남과 북은 서로를 의심하며 보다 근본적인 통일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남

한은 북한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남한에 대한 불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10년경이 되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미국의 신냉전질서가 동북아시아를 지배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신냉전 이전에 반드시 남과 북이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남과 북의 농구선수들이 보여준 단결과 단합의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남의 뜻에 의해 영구적인 분단을 맞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장래에는 통일을 위한 농구대회가 아닌 통일을 기념하는 농구대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열릴길 기대해본다.

우철주 대학부장
cowso@cakra.dongguk.ac.kr

기획시리즈 너희가 조작식품을 먹느냐

- 1. 생명공학이란
- 2. 유전자 조작식품

환경생태계 파괴에서 식량난 해결까지

식품개발할 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지난 50~60년대 1차 녹색혁명은 품종 개량과 화학비료 등의 개발을 통해 농작물의 수확량을 대폭 늘려 기아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제는 유전공학을 통해 농, 축산물을 변화시키는 제2의 녹색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학계 및 기업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 및 종교단체들은 윤리, 안전성 측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유전자조작 식품은 유전자(DNA)재조합을 주 기술로한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적인 방법을 통해 생명체의 기능을 변화시켜 생산한 식품으로서 넓게는 식량 증산, 영양 개선, 저장기간 연장, 병충해 내성 향상 등의 기술에 의한다.

유전자 조작식품 제조방법

유전자조작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하는 유용한 유전자를 취하여, 이를 대상이 되는 농축산물의 세포에 도입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아그로박테리움(agrobacterium)법'으로서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미생물이 식물세포에 자신의 유전자를 이입시키는 성질 즉 감염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미생물에 목적하는 유용한 유전자를 삽입시키고(전용어로는 크로닝clonning이라고 함), 식물체를 감염시킴으로써 유전자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프로토플라스트(protoplast)법'은 식물세포의 세포벽을 제거한(세포벽이 제거된 식물세포를 프로토플라스트라 함) 후 유용한 목적 유전자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파티클건(particle gun)법'은 금 미립자(gold particle)에 유용한 유전자를 결합시키고, 고압가스 등의 힘으로 농작물 세포에 밀어넣는 방법이다. 동물세포에는 유전자를 미세주입(microinjection)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유전자조작 품종이

종래의 품종개량과 다른 점

생물체의 유전자를 개량하여 유용한 형질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유전자 재조합식품도 종래 품종개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방법은 같은 종(species)에서 돌연변이를 통하여 우성의 유전자를 개발하던가 유사한 종간의 교잡을 통하여 형질전환을 하는 반면, 유전자

조작을 통한 개발 방법은 종을 초월하여 특정 유전자를 특정 개체에 삽입하는 것으로서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극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전자 조작식품 현황 및 전망

유전자 조작으로 개발된 최초의 식품종은 미국 '칼진'사가 개발하여 94년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토마토이다. 그 후 스위스 화학회사 시바가이기는 제초제에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병충해에도 강한 옥수수를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98년 수정란에 성장호르몬 유전자를 이식해 길이 45cm, 무게 4백g정도까지 성장한 미꾸라지를 만들었으며, 특정한 형태의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감자, 모유와 유사한 우유 등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세계적으로 이미 옥수수, 콩, 감자, 면화, 담배 등 30여종 이상의 유전자 조작 작물들이 생산 및 판매되고 있다. 경제학 교수인 니컬러스 카라이찬오네이크스는 올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옥수수, 콩, 면화의 50%는 유전자조작 농산물로 총당량 것이며, 5년 이내에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 시장이 2백억달러, 오는 2010년에는 7백50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식품, 그 필요성과 문제점

90년대에 들어 유전자 조작기술의 등장

에 의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이와 같은 연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인류에게 식품종개발은 제2의 녹색혁명처럼 들리기도 한다.

UN의 '세계인구예측'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는 약 60억이나 2000년에는 62억, 2050년에는 98억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990-1992년 평균 8억4천명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으로 유전자조작 식품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아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병충해 저항성, 제초제 내성 작물의 경우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를 줄일 수 있어 생산비의 절감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모든 음식물이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어 흡수되므로 유전자조작 식품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한다.

미국 FDA (식품의약국)가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의 시판을 허용한 잠정적 이유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환경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유전자 조작 식품을 '프랑켄푸드' (프랑켄슈타인이나 먹는 식품)로 간주한다.

단지 인간 우월주의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슈퍼미꾸라지를 만든 과학자들이 "이렇게 몸집이 커질 줄 몰랐다"고 토로한 것이 좋은 예다. 또한 독일 쾰른대학 과학자들은 생쥐에게 먹인 유전자가 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체내 세포로 침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영국 로레트

연구소는 유전자가 조작된 감자로 쥐를 사육한 결과, 쥐의 주요 장기의 손상, 면역 기능 약화, 뇌의 축삭등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문 일 수
의과대학 의학과 해부학교실

유전자의 변형으로 생산된 식품이 과연 인체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생명체의 유전자는 수억, 수천만년의 진화과정을 거쳐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 형성되었다. 우리는 아직 유전자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전자원 확보'라는 전쟁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미 지난 세기부터 지구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시작하여 현재 미국은 40만점, 중국은 35만점, 일본은 20만점의 식물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익점은 중국에서 목화씨를 몰래 가져왔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사건'이 국가의 사활을 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유전자조작 식품은 인구, 환경, 경제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사안으로서 안전확보와 식량난 해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안전성, 공인된 바 없다

미국, 주도해 개발 ... 유럽, '거부'

현재 식품안전성 및 건강위해 논란을 빚고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지난해 국내 수입량은 총 농산물 수입량 1천 4백여만톤의 10%가 넘는 1백 50만톤이라고 외교통상부에서 밝힌 바 있다.

그중 수입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감자, 콩 옥수수 등 10여종으로 주로 미국에서 수입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명공학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국내소비자들은 어떠한 '거부' 표시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미국산 유전자 조작공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대원들이 오스트리아 보건장관 집무실을 점거·농성을 벌이고 영국, 오스트리아 슈퍼마켓 상인들도 반발하는 등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거부의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또한 이유식에 유전자공을 원료로해 물의를 빚었던 네슬레도 그린피스 대원 30여명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의 사정과는 달리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선진국 특히 유럽 국가 국민들의 저항은 매우 거센 실정이다.

그리하여 선진국의 식품공회사들은 현재 개발도상국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인도나 구소련 등지에서 목화과 감자 등을 시험 재배하는 것이다.

유전자 생물체에 정보가 부족한 이들 나라에 '소출이 좋다', '비료와 농약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형식으로 유전자조작 시범재배를 행하는 것이다. 이런 피해의 예로 목화밭이나 감자

밭의 소출이 반으로 줄고, 타지역으로 나쁜 종자가 번지는 등 선진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유전자 조작물이 생태계와 소비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전자 조작식품 분야의 특허 가운데 98%는 생산과 가공을 쉽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며, 영양이나 맛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2%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가운데는 돼지에 사람의 유전자를 넣어 개발된 기름기 적은 돼지도 있다하니 현재 조작식품의 무분별은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 이런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국가가 없는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이다.

미국은 유전자 조작식품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 농산물 시장을 폭넓게 차지하고 있어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거부의를 더욱더 급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미국정부나 곡물·식품업체들이 유전자 조작식품의 표시제도 자체를 반대하는데 더욱 그 의욕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전자 조작식품을 장기간 먹었을 때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다. 이런 점을 미루어볼 때 미국 정부는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국민들을 실험동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대규모로 진행되는 실험의 일부가 아닐런지.

유전자식품 표시만이 최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거주 소비자 528명을 대상으로 최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응답자 94.7%인 498명이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0.8%(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전자 식품에 필요한 표시사항으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나 원료로 가공된 식품을 나타내는 문구 또는 그림이 들어가야 한다'에 411명(82.5%),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가 333명(6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때문에 수입되어지는 유전자조작식품의 수는 총 30여가지다.

표시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는 유전자식품 표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의 최선책이다. 농산물의 70%를 수입하는 한국은 이미 유전자 조작 곡물이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는 알고 먹어야 할 것이다. 유전자 식품을 먹느냐 마느냐는 분명 소비자 선택의 권리이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하지 않고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 의무와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우리가족이 먹는 음식을 선택할 권리를 당당히 찾아야 할 때이다.

백양우 기자
woo@mail.dongguk.ac.kr

동대신문 생활광고 - 환경을 살리자 1

분리수거하는 당신의 손이 여름답습니다

쓰레기통 안에서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십니까
종이류 쓰레기통에서는 병과 캔들이
캔류 쓰레기통에서 종이와 병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서와 병가워. 야! 친구들! 우리 친구가 힘만 더 생겼다.
넌 뭐야? 넌 우리 친구가 아니잖아.
쓰레기 분리!
저기 앞쪽 아수라장이군. 잘 처리합시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동국의 자랑!
'99 백상예술제전이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다.
물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다른 세상으로

더이상 사상·표현의자유를 억압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이 제남너소수극우합계외침시다.

| | | | |
|-----|---|-----|--|
| 11일 | '99 백상예술제전 여는 마당 (1시 불상 앞) 소리대대 출연 "내 사는 내 동국 제일로 좋아" - 민족동국 과·학부 학생회 한마당 (6시 만해광장) | 13일 | 작은 소리 큰 울림 - 민족동국 소모임 한마당 (6시 만해광장) ROCK, 춤·노래 등에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다. 오지총 출연 |
| 12일 | "배째라!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행동의 날 (하네 곳곳) "국가보안법 없는 또다른 세상으로"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족동국의 밤(6시 만해광장) 우리나라, 신바람, 자우림 등 출연 | 14일 | 백상단축마라톤 (12시 불상 앞 출발) '99 백상예술제전 닫는 마당 (6시 만해광장) 좋은 친구 등 출연 |

"나는 국가보안법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선언운동은 서명과 더불어 신문광고 기금 1,000원을 선언용지를 들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거나 각 과·학부, 단과대, 총학생회로 내주시면 됩니다. 선언운동은 10월 4일부터 12일 "국가보안법 없는 또다른 세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 석방·정치수배 해제·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동국의 밤" 이전까지 진행합니다. 교수님들, 직원분들 그리고 일반 이천 학우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캠 민족동국 31대 자주적총학생회

유학생에게 듣다

이시킴 마유미 (인문학부 사학전공)

“한국인 공공질서 너무 안 지킨다”

개인적인 만남에선 특별한 정 느껴



이시킴 마유미

나는 2년 전에 한국으로 왔다. 오게 된 이유는 단순히 가장 가까운 외국을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을 다니면서 한국어를 1년정도 공부했다. 원래 한국에 오기 전에는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1년정도 공부하고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나는 어학당을 마치는 시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어학당에 다녔을 때도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당시 나는 작은 월세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 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매일 저녁 샤워를 해서 수도요금 많이 나왔다고 꾸중을 듣기도, 매일 아침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전기요금 많이 나와 다른 세입자들 보다 전기요금을 많이 내라고 독촉도 받았다. 물론 수도 요금도...

어느날 친구가 놀러왔는데 화장실을 잘못 알고 할머니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친구를 도둑인줄 알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그 후, 그 일 때문에 할머니는 나에게 매일매일 잔소리만 하시고 정말 참기 힘든 나날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사까지 해야만 했다. 한국을 보면 일본과 가까운 나라이지만 다른 점이 많다. 길을 가다 부딪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가버리는 사람들,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급하게 출발해 버리는 자동차들, 그리고 질서를 안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2

년동안 한국에서 많이 보아온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이다. 그래도 이상한 것은 개인적으로 한국인들을 만나면 정말로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어학당에 다녔을 때 만난 한국인 친구들은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도움을 주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정말 보물같은 존재이다. 나는 이런 한국인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를 더욱 깊이 알고 싶어서 한국의 역사부터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학교는 동국대를 선택했다.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불교, 그 불교적인 기운이 가장 깊은 대학교가 동국대학교이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무사히 합격하였고, 3학년편입을 할 수 있었다. 3월 학교가 개강을 하였다.

나는 한국인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한국에 대하여 또 한번 놀랐다.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꿔놓거나 아니면 아예 꺼놓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다. 동국대를 예로 들자면 수업중에도 휴대폰 소리가 들리고,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일본에서도 지하철이나 식당에서 가끔씩은 있는 일이다. 그런데 도가 좀 지나친다.

일본대학에서는 시험칠 때 컨닝을 한 다해도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하는데 이곳은 너무 당당하게 해서 오히려 내가 당황했다. 물론 소수의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친절하다. 학생들은 내가 외국인이나가 많이 도와주고, 교수님들도 아주 친절하게 나를 대해준다. 그래서 학교를 올 때마다 좋은 느낌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동국대학교가 아닌 한국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사람과 사람의 정이라는 것, 그리고 무한하게 감추어진 힘, 배울점이 많은 한국을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나라 한국.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한국에 오길 잘했지?”

오늘의 글

이상진 (상경대 경영 야 4)



“아들과 같이 대학다녀요”

만학도, 환갑에 대학원 진학 계획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즈음, 강의실로 모여드는 젊은 학생들 틈속에 양복차림을 한 중년신사의 모습이 보인다.

“대학생활의 동경이랄까? 항상 대학캠퍼스를 꼭 밟아보아야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라며 큰 용기를 내어 '9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게 되었다는 54세의 이상진(경영 야 4)씨.

어린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던 그는 배움의 한을 가슴에 품은채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대학입시를 위해 서울시 유명학원에서 몇 달간 늦깎이 공부를 시작하였고, 지금은 졸업을 앞둔 어엿한 대학생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대학입학 면접시험을 볼 때 말이지, 너무 부끄러워서 모자를 눌러쓰고 마

스크까지 했었어. 나이먹어 주책이라는 주위의 시선들이 무척 따가웠거든.” 늦깎이 대학생활을 시작한 그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듯했다.

그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 끼어 불청객이 된 기분을 지워버릴수 없었고,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공부에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나 “강의가 끝나고 젊은 친구들과 떡볶이나 김밥을 먹으며, 그들과의 만남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어. 아들뻘 되는 젊은 친구들에게도 배울것이 있더라구. 가르침은 나이에 상관없이 주고받을수 있는 것 같아.”라는 그의 말은 이제 그는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신세대 만학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게했다. “사과농장을 경영하면서 공부 하는 것이 때론 힘들었지만 난 학생이기에 앞서 땅을 사랑하는 한 농부야.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고들 하지. 나역시 그말의 진실을 믿고 살지.” 또한 그는 포항부근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농부이자, 한 시대의 아버지라는 인상을 풍겼다.

그리고 사회의 선배님으로, 또 아버지로서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학교생활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자기보다 더 못한, 소외된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세상을 바로 보는 시각도 지녀야 되고, 더우기 우리 대학생들이 부모님의 노고도 잊지 않았으면 해.”라며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인생 선배로서의 다독거림과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곧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지역사회의 봉사단체인 국제 로터리클럽 회장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마디 불평도 없이 언제나 뒤에서 지켜보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아내와,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며 힘이 되어준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그는 이제 졸 업 후 더 큰 배움의 꿈을 안고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그의 모습이 부끄럼없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원히 빛날거라 생각된다. <지>

wisdom@mail.dongguk.ac.kr



1등주민... 중구민들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2일 본교 서울캠 대운동장에서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가 열렸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제27회 ‘신라 문화제’ 개최

7일 오후 6시 전야제를 시작으로

제27회 신라문화제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62년 제1회를 개최한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이 행사는 7일 오후 6시 전야제를 시작으로 제전, 민속경연등 9개부분 40여개 종목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 내역을 살펴보면 전야제-△화랑·원화선발대회 △경축 시가행진 △고적대 △축무 △농악대 등 제전△서재 △새발향연 민속경연△졸다리기대회 △그네뛰기대회 △공도대회 △화랑 씨름대회 △신라검법대회등이다.

이밖에 신라불교역사대제 등의 불교행사 문화재해설 등 학술행사, 경주상가 축제 등의 경축행사가 열린다.

그리고 제17회 전국 국악대제전, 제20회 신라미술대전, 사진공모전, 한글백일장, 사생대회등의 각종 예술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도비 2억원, 시비 5억원, 불국사 부담금 1억원등의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된다. 그리고 예산 절감과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라문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제25회 시민체육대회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약 15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이번 행사에는 자매도시인 익산시의 무영탑 공연 및 익산문화원의 농악단 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두 도시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해 줄 것이라 전망된다.

의학상식



보통 가을과 겨울에 유행하는 독감은 두통,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와는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BC형에 의한 독한 유행성 감기로 A형이 가장 독하다.

가을과 겨울에 1~3년 간격으로 유행하며 주로 호흡기를 통하여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증상은 보통 갑자기 시작되는데 앞머리와 눈썹 쪽으로의 두통과 특히 다리 및

허리를 많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생후 6개월 이상이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만성심장병이나 호흡기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독감으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하는 것이 당뇨병,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장필식
집내과 원장

비상! 독감 유행하는 가을·겨울철 지금쯤 예방 접종해야 한다

둔부의 근육통이 심하고 고열과 한기가 나며 콧물, 기침을 하게 되고 기침할 때 흉통이 동반될 수 있다. 3~5일 쯤 후에 열이 떨어지고 통증이 없어지게 되나 쇠약감이나 기침 등의 증상은 오래가는 경우가 많다.

독감이 무서운 것은 심한 통증과 고열 뿐만 아니라 합병증 때문인데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폐렴이 가장 흔하고 축농증, 중이염등이 생길 수 있으며, 신경장애나 간장장애, 근염 및 심근염도 발생할 수 있다.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몸의 저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며,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공간에 오래있거나

평소에 건강하더라도 65세 이상이거나 의사나 간호사 같은 환자와의 접촉이 빈번한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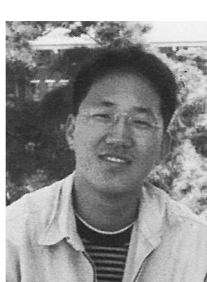
그리고, 백신을 만들 때 계란이 사용되므로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 접종후 황체 형성 1개월가량 걸리고 초겨울에 유행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이른 가을에 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백신은 보통 전체에 유행한 바이러스형으로 만드므로 당해에는 50%~80%에서 예방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감기에 예방에도 약간 효과가 있다고 한다.

독감에 걸리면 충분한 휴식과 수분 및 영양섭취를 해야하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스피린 사용은 유아에게 주의깊게 투여해야 한다.

발언대

“이러다 중운위 해체된다”

각 단대 및 자치기구 회장들 유종의 미 거뒀야



박제형
자연과학대 학생회장

지난번 동대신문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석상의 빈 의자들 사진이 크게 실린적이 있다. 그때는 나 역시도 지금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하였다.

그런 나였기에, 또 같은 중운위 위원으로써 처음에 이 원고를 쓸때 심히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뭘 묻는 게 뭘 묻는 게 나 무란다”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제사를 베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내가 기억하는 그동안의 중운위는 회의가 성사된 것 보다 되지 못하게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2학기 들어서 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고, 물론 중운위가 개최될 때마다 꾸준히 나오는 위원들도 있지만 과반수 이상이 빠져나간 한 번 나오거나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참석하는 중운위원들도 기본으로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지각을 일삼는다. 제 시간에 중운위가 열린 것은 정말 다섯손가락으로

충분히 꼽을만 하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자기 단위사업 일정도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학우들이 믿고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준 ‘장(長)’이 아닌가? 아닌말로 우리가 그토록 협조하는 기성정치인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처럼 학내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중운위는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학우들의 단결된 힘을 모으기 위해 중운위원들부터 단결이 더더욱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모자라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 문제를 논의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은 도대체 학내문제에 관심이 있는건지 조차 의심스럽고, 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간부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앞으로 각 단대 및 자치기구장들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각 장들은 내년에 중운위원들이 될 사람들-이러다간 내년부터 중운위라는 것이 사라질지도(?)-에게 중운위 위상을 확인 시켜주기 위하여 중운위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회 간부는 학우들의 힘으로 당선되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 박지호 스님을 만나

경주, 가정폭력 상담소 개설

카운셀링 강좌 개설 ... 본교 학생 참여 당부



박지호 스님

“경주는 보수적인 도시야.” 가정폭력 상담소를 연 지 2달이 조금 못되는 지 호스님의 첫 마디였다.

보수적인 도시 경주에서는 가정폭력의 잠정적 발생이 많으므로 그 출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상담소를 열게된 계기를 설명하는 스님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되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라며 상담할때의 마음을 간단히 털어놓은 스님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와도 마음놓고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리고 폭력가정에서 벗어나 여성 혼자 자립하는 것을 도와 줘야 해”라고 상담소의 시설이 미비한 점을 아쉬워했다.

주로 어떤 상담을 받느냐는 질문에 “전화상담이 많아. 보통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지. 그리고 개중에는 동국대 학생들의 이성문제 상담도 있어”라는 스님은 “그럴 나니까”라며 이해의 말을 덧붙혔다.

그러나 “상담할때 보람을 느껴 하지만 끝에서 태도가 변하는 상담자들을 보면 실망스럽기도 해”라고 상담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으로 카운셀링 교육을 개설할꺼야. 거기에 동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제라도 병원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봉사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라며 미소 짓는 스님은 때때로 실망감을 느끼기 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희망에 젖어 있었다.

상담소가 생긴지 거의 두달, 그간의 운영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사찰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지. 하지만 현재는 후원회를 모집하고 있지”라며 난색을 표했다.

“우리사회는 가부장적 제도에 물들어 있어. 그러나 여성도 인격체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폭력이 사라져야해!”라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던 스님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이내 “가정폭력은 학습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찾아가 서로의 용어를 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라며 문제의 심각성과, 용기를 가지고 상담을 청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의 노력이 머지않아 이 도시의 아픔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리라 기대해 본다. <미>

kal@mail.dongguk.ac.kr

가정폭력상담 749-1366
청소년상담 749-1318

소나기

동티모르 파병 여·아대결



△파병이 결정난 상황에서 이런 주제는 말그대로 시대에 뒤떨어진다.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말을 썼는가?
 △반대! 지보고 가라개라. 국가적 손실!
 △동티모르가 어딴지 몰라서미안.
 동태로 연락바람.
 △당근파병 이유 :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공병이나 의료병 파병은 안된다. 공병이나 의료병으로 जाने되면 호주군대의 보조밖에...
 △싸움은 군인이 하는데 왜 국회가 먼저 싸우지?
 △모두가 다들 난리군. 우리학교에는 파병안오나?
 △미 코연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공격지지와 무장해제를 요구했다는군. 아! 너같은 그렇게 하나?
 △이쯤되면 미국이 움직일때가 되었는데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질 않는군.
 인도네시아가 자गत들 밥이니까 밥상 한번 뒤엎으면 해결될텐데.
 △힘내라 힘! 동티모르는 내손안에 있소이다. 몰랐지?
 △큰일 나부렀네. 인도네시아 민병대의 상당수가 육군 특전사라고 하는데. 이라다 누구 잡는거 아닌지 모르겠군.
 △정치인 한두명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나라 군인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보도될텐데.
 △정치인들 잘 싸우던데. 정치인을 징쟁터로!
 △방기! 이제 우리도 세계속의 당당한 목소리를 낼수 있겠군
 △동티모르가 어딘가? 일본요인가? 그럼 X박살 내야지
 △진원이 형 파병 좀 시켜줘요.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주게.
 △서티모르는 파병 안해요
 △돈 많이 벌어요세요.
 -월남파병용사
 △동티모르(?). 동태에서 또 학교세워?

TEL: 22603491·2
 (0561)7702058
 FAX: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 | |
|---|----------------------------|
| 월 | 순살돈까스(1500) 떡볶이백반(1300) |
| 화 | 치킨샐러드(1500) 간짜장밥(1500) |
| 수 | 집채밥(1300) 오므라이스(1500) |
| 목 | 떡갈비찜(1500) 김치볶음밥(1300) |
| 금 | 오징어탕수(1500) 콩나물무침(1300) |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 | |
|---|--|
| 월 | 두부김치(1500) 황태볶음(3300) 순대야볶음(1300) 돈육양념구이(3300) |
| 화 | 해물덮밥(1500) 설렁탕(3300) |
| 수 | 모듬나물비빔밥(1300) 산채비빔밥(3300) 간짜기(1500) 우렁콩장짜개(3000) 참치김치찌개(1300) 할박스테이크(3800) |
| 목 | 제육덮밥(1500) 불낙전골(3500) 미트볼덮밥(1500) 닭도리탕(3300) |
| 금 | 소고기볶음밥(1300) 소고기영양탕(3300) 오징어김치덮밥(1300) 콩고추잡채(3300) |

(단위: 원)

도서관 출입, “이제는 개방하자”

도서관은 지하철이 아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는 출입통제장치가 있다. 학생증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 즉 동대도서관은 동대생 전용인 것이다.
 전세계대학 도서관 중에서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도서관출입을 통제하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도서관자체를 외부인에게 폐쇄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우기 학생들의 교육재정확충 주장과 비교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18일, 5백여명의 국립·사립대 학생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오르려고 하니 정부가 지원을 해달라는 주장을 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 정부 지원이 무슨 돈인가? 바로 국민들이 낸 혈세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그 국민들의 도서관 출입조차 막고 있다.
 대학은 학생을 공부시키는 곳이지만 더불어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다.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의 폐쇄적인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병성(한의대 한의학과)

‘환경과...’, 특정교재 강요 말아야

‘환경과 사회’라는 교양수업을 듣는 상경대 학생이다. 첫 수업때 강사는 자기 가 추천한 강의 교재라며 책을 박스로 가져와 학생들에게 구입을 권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한 행위라 생각했으나 몇일 지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짝 사라져버렸다. 강사는 그책 출판사에서 교재를 2백권 주문했으나 학생들이 1백20권 밖에 구입하지 않아 80권이 남은 상태에서 처분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 전에 그 강사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주었다. 과제 제목은 그 교재의 제목과 똑같은 “생태계 위기와 한국의 환경문제”였다. 그 책을 요약해서 10포인트 이하 글자 크기로 A4용지 10장 이상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한장을 덜 쓸때마

다 1점씩 점수를 내리고 글자 크기가 10포인트 이상일 때는 영점처리 하겠다고 했다. 그 다음날은 더욱 가관이었다. “이 책을 사지 않은 사람은 좀 힘들겠조”라고.
 그러자 학생들이 다른 교재로 과제를 제출하는 건 어떤가 물어보니, 그렇게 하려거든 교재명, 출판사, 저자명, 출판년도, 참고한 교재의 어느 부분 몇페이지까지 과제에 명시하라는 등 시럽지 않은 것까지 요구했다. 그 강좌를 듣는 학생으로서 불쾌한감을 떨쳐 버릴수 없어 학사지원실을 찾아가 봤지만 그건 학교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시정 이 꼭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명호(가평, 상경대)

“프린터기 확충해야”를 읽고

본인은 정보문화관 2층에 위치한 PC 자유실습실(컴퓨터실습실 EK)의 관리 조교입니다. 귀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보의 부재로 학교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실습실 EK는 원래 공과대가 위치한 원흥관 4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지난 9월13일 정보문화관 2층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비록 컴퓨터는 낡고, 구형이지만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보고서를 작성, 출력하는데는 그다지 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3대의 최신프린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일반 작업을 할 수 없고, 프린터 작업을 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말에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보문화관 실습실 EK 과 해화관 1층의 GI 실습실을 사용하면 됩니다.
 끝으로 컴퓨터 실습실은 학생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곳인 만큼 조심스럽게 사용해 달라는 것과 도서관처럼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삼가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shot@cakra.dongguk.ac.kr)

언어교육 연구소에 관하여

현재 동국관 1 동 2층에 위치한 어학원에 관해서 시정조치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학생들이 오디오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보는 과정에서 A4용지로 되어있는 책자를 학생들이 보고서 직접 작성하고 있는데, 그 책자가 거의 너덜너덜해져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목록이 적혀있는 책자를 관리하지 못하겠으면 컴퓨터로 개발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서 찾는 사람도 편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편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규구입을 한다고 학생들보고 적으라고 했던 비디오 테이프나 오디오 테이프들이 정말로 들어왔는지 1학기 때하고 전혀 변한 것이 없더군요.
 언어교육원이면 새로운 정보를 접해서 최신의 테이프와 교재를 구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호(전신통계4)



오순도순... 가을학기도 중반에 접어들어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강의시간 틈틈이 모여 앉아 헌담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한 무리의 남학생들을 웃게 만드는 공통의 화제는 무엇일까? 촬영=송광수 동문

모니터링

제 1279호 동대신문을 읽고...

동대신문, 양캠간의 이질감 없애는 교두보 역할 해야

각 캠간의 장·단점 비교 및 분석기사 필요

‘적자와 서자’, 오래 전부터 은방울의 학우들은 경주 캠퍼스를 서울 캠퍼스와 이렇게 비교하여 왔다. 본인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실감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어떤 학생들은 입학 후 졸업 때까지 총장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원호관의 경우도 그렇다. 좋게 말한다면 여러 분야의 학업을 하는 학우들끼리 모여 생활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 마디로 말해 온갖 상품을 모아놓은 시장과 같다.
 물론 서울캠퍼스에서도 그 나름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본교와 분교라는 점도 있지만 서울과 경주라는 거리상의 문제 또한 양 캠퍼스간의 이질감을 더욱 짙게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서로간의 이질감을 완화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특히 동대신문은 서울과 경주의 소식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고 있다.
 비록 몸은 경주에서 혹은 서울에서 생활한다해도 매번 동대신문이 나올때마다 바뀌어가는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상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 지난호의 기사를 예로 들어보면 한가위 전의 상록원 모습을 활용한 화보가 경주캠퍼스의 많은 학우들의 눈에 띄었을 것이다. 학기가 새로 시작하고 원호관의 중정이 새 단장을 하였다. 보도블럭을 해체하고 진한 녹색의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것이다. 새로운 변화에 만족하는 학우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상록원의 바다 모습과 비교해

모두 아쉬워했을 것이다. 또 여론란의 내용도 그렇다. ‘복사카드로 사용 가능한...’라는 최보영 학우의 의견은 우리 경주 캠퍼스 학우들은 전혀 알지 못하던 사실이다. 매번 시험기간만 되면 학생회관의 컴퓨터점 앞에서 줄을 선 학우들의 모습을 생각해봐 모두들 아쉬워했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읽고 경주캠퍼스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면 언론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서로의 단점이나 장점을 비교하여 조금씩 보완하고 바꾸어 나가면 양 캠퍼스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듯이 양 캠퍼스간의 이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민호(인문과학대 국어국문학과)



동악광장

목명길 축하합니다
 △10월 1일! 31대 총학생회 정책선전국장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대 DIY일동
 축하화야! 첫방 축하하고 계속 열심히 해.
 -결명이 씨니
 △DUBS 41기들 첫방 축하한다. 그러나 금요일날 각오하자.
 -Ferza Corea
열심히 합니다
 △국교과 축전준비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잘합시다.
 -국교 98
 △국어교육과 30주년 기념 축전을 멋지게 준비한 정현이 형, 오정달, 99동, 화희장, 그리고 축준위, 김부장님들 고생했어 요. 즐거운 축전이 될 것 같아요.



-국교장
 △EJ 힘내라! 그 아이 돌아온다! 언젠가! 'MK', 'YW', 'KS' 2000 Fighting!
 △(문)영수야! (토목 95) 힘내라... 여자가 세상에 하나뿐이야! 좋은 여자가 있을 거야!! 파이팅!
알립니다
 △MK. Family 모임 갖자!! -어는 조원이
 △이슬아 너 때문에 애간장 녹는 사람이 있다.
 -LH
 △수학교육과 81학번 선배님들 최은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주점이 10월 7일 목요일 2시부터 학림관 앞에서 있습니다.
안방길 축하합니다
 △영상! 14기, 17기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드리구요. 10월5일~8일까지 하는 졸

업전시회 성공리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재학생 일동
 △C·선영에서 제15회 I H B S(인하공전)원점가요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충주 MBC 남한강 가요제에서도 좋은 결과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해
 △광명이랑 미령이의 100일을 축하하고, 덩달아 수임이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H.C, T.H
 △윤경이의 22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언제나 밝은 너의모습 기대할게. △국제관계학과 도신정. K·Y와의 1000일 축하해.
 -E·Y
 △윤이랑 동비니의 100일을 추카해. 호우인 모두 덩달아 10월 4일날 동비니 생일두 추카해.
알립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동물과 ‘불취’ 10월 7일 오후 5시 교내사거리에서 정기발표회를 가집니다. 많은 관람과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성

열심히 합니다
 △필하모니 가족 여러분. 공개감상회가 끝나는 날까지 힘내세요. -11기 선배가
 △전룡, 이번 체전 잘해봅시다.
 -어는 전룡인
수고하셨습니다
 △Newsweek인들여! 이번 TIME과의 연합발표에서 귀하들이 보낸 뜨거운 열정에 다시한번 감동하였소. -빅캐장
 △동대 한의대 학생회 여러분. 모두 동의런제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학우
그리고...
 △9월 27일이 상헌이와 향지의 일년째 되는 날이에요! 항상 행복하길...
 -치주인
 △법정학부 총효랑, 형진이랑 군대 잘 갔다오고 너무너무 사랑하는거 잊지마.
 -강성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 | |
|---|--|
| 월 | 근대국(1300) 쇠고기무국(1300) 카레라이스(1500) 쇠고기볶음밥(1700) |
| 화 | 콩나물국(1300) 견세우이육국(1300) 오징어덮밥(1600) 곰탕(1800) |
| 수 | 게맛살연두부탕(1300) 숙종이국밥(1300) 햄볶음밥(1600) 스파게티/고구마(1800) |
| 목 | 김치국(1300) 민두국(1300) 돈까스(1500) 쇠고기덮밥(1700) |
| 금 | 복어채국(1300) 어묵무국(1300) 잡채덮밥(1800) 히어라이스(1500) |
| 토 | 시래기해장국(1300) 김치볶음밥(1600) |
| 일 | 배추국(1300) 돈육덮밥(1600) |

(단위: 원)